

인문
상경
(오후)

2020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논술 전형



성명	
----	--

지원 학부 · 학과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답안지, 문제지 및 연습지에 성명, 지원학부·학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어떠한 표현이나 표기도 하지 마시오.
-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 고사 종료 후 답안지, 문제지 및 연습지를 모두 함께 제출하시오.
- 진행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시 퇴실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필기구(볼펜, 샤프, 연필)로만 작성하시오.
(빨간색이나 파란색 등 사용 금지)
2. 답안지 수정 시 지우개(연필, 샤프 사용 시)를 사용하거나,
가로로 두 줄을 긋고(볼펜 사용 시) 그 위에 재작성 하시오.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3. 본 고사의 답안은 1매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답안지 교체는 가능합니다.
단, 답안지 교체 시 기존 답안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답안지 교체로 인한 책임(시간 부족 등)은 요청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5. 다음의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을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답안 작성 시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경우
 - 3) 답안과 관련 없는 어떠한 표현이나 표기를 한 경우
 - 4) 답안 작성 시 해당 문제의 답안을 다른 문제의 답란에 작성한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 1]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평화주의자의 딜레마’는 폭력의 역학 변화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다. 모든 개인과 연합체는 공격에서 승리하여 이득을 누리려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협동자를 배신하는 행동), 똑같은 유혹에 따라 행동하는 상대에게 패배하여 손실을 치르는 일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둘 다 공격을 택한다면, 그들은 괴로운 전쟁에 빠져들어(상호 배신) 둘 다 평화를 택했을 때보다(상호 협동) 더 나쁜 상태에 도달한다. <표 1>의 손익 표는 평화주의자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비록 이 손익 표에서 이득과 손실에 주어진 값은 임의적이지만, 딜레마의 비극적 구조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세상이 <표 1>과 같은 손익 구조일 때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상대가 평화주의자라면, 나는 공격자로서 상대의 취약성을 이용하고픈 유혹을 느낀다. 승리의 10의 이득이 평화의 5의 이득보다 낮기 때문이다. 상대가 공격자라면, 나는 평화주의자로서 상대에게 착취당하는 희생자가 되느니 공격자로서 전쟁의 괴로움을 견디는 편이 낫다. 착취당하는 희생자가 되면 처참한 100의 손실을, 전쟁을 택한다면 50의 손실을 겪는다. 결국, 어느 쪽이든 공격이 합리적 선택이다.

<표 1> 평화주의자의 딜레마

		상대의 선택	
		평화주의자	공격자
나의 선택	평화주의자	(5, 5)	(-100, 10)
	공격자	(10, -100)	(-50, -50)

*괄호 안의 첫 번째 값은 나의 손익, 두 번째 값은 상대의 손익을 의미

<나>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이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은 오로지 그 자신의 이성 의해서만이 통치되며, 자신의 생명을 적들로부터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선 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용할 수 없는 것 혹은 이용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연권(right of nature)에 의해 모든 인간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심지어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도 갖는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만물과 타인의 신체에 대해 이와 같은 자연의 보편적 권리를 갖고 있는 상태가 존속하는 한, 자연이 보통 인간에게 살도록 허용한 시간을 다 살 수 있는 안전은 어떠한 인간에게도 보장되지 않는다.

상호신뢰에 의한 계약은 어느 쪽이든 한 쪽에 불이행의 우려가 있는 곳에선 무효이다. 따라서 정의의 원천이 계약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우려의 원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실제상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두려움의 원인은 인간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제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의 이름이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선 그 전에 어떤 강제력이 존재하여 인간들이 계약의 파기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좀 더 큰 처벌의 공포에 의해 그들로 하여금 똑같이 계약을 이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부족 사회가 최초의 국가들의 통제를 받게 되자, 습격과 복수가 억제되어 폭력적 사망률이 5분의 1로 줄었다. 유럽의 봉토들이 왕국과 주권 국가로 융합되어 법 제도가 통합되자, 살인율은 또다시 30분의 1로 줄었다. 반면에 정부의 손길을 벗어난 무정부 상태의 고립 지역은 폭력적인 문화를 유지했다. 유럽 주변부와 내륙 산악 지대가 그랬고, 미국 남부와 서부 변경 지역이 그랬다. 사회 경제적 풍경에서의 무정부적 고립 지대도 마찬가지였다. 하층 계급은 일관된 법 집행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밀수업자들 역시 법 집행에 의지할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탈식민화, 실패한 국가, 혼탁한 정치, 경찰 파업 등 법 집행이 후퇴한 때는 폭력이 도로 아우성쳤다. 무능한 정부는 가장 중요한 내전 위험 요소로 밝혀졌다. 폭력으로 황폐해진 개발도상국들과 그보다 평화로운 선진국들을 가르는 주된 요인이 그 점일 것이다.

[문제 1]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표 1>의 손익 값(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이를 통해 제시문 <가>에서 제시하는 ‘평화주의자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500자, 40점)

2	
	4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 2]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민주정치는 시민 스스로 다스리는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원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시민의 사회 참여는 민주 정치 그 자체이며,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시민의 사회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가 권력은 소수의 손에 들어가 시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오늘날 대의제 하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자신들의 의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오늘날 시민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는 시민이 주권자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게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또한, 행정기관에 청원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며, 언론기관에 투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때로는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정치적 의견을 함께하는 정당을 후원하거나,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이익집단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시민 단체 활동을 통해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경제,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들 외에도 집회나 서명운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여론으로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에서는 전자투표, 온라인 서명, 사이버 캠페인 등 정보매체를 이용한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초월한 사회 참여가 가능해졌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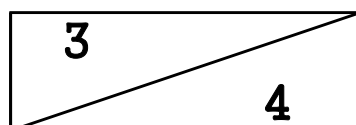
더러는 연대의식으로 정부의 조치나 국민을 비판하기도 한다. 애국심은 정부정책에 반대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벌였던 두 가지 근거를 예로 들어보자. 하나는 전쟁은 부당하다는 믿음이었으며,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우리 국민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전쟁이라는 믿음이었다. 첫 번째 이유는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그 전쟁에 책임이 있는 나라의 시민들만이 느끼고 외칠 수 있다.

(중략)

가족이나 동료 시민의 행동에서 자부심과 수치심을 느끼는 감수성은 집단적 책임감을 느끼는 감수성과 연관된다. 둘 다 우리 자신을 어딘가에 소속된 자아로 인식하게 한다. 즉,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한데 묶여 있으며, 우리를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는 서사에 연관된 사람들이다.

(중략)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개인이 단지 자신의 선택과 행동만 책임지면 그만이라고 고집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자부심을 느끼기는 어렵다. 다른 곳에 사는 누구라도 독립선언서, 헌법, 링컨의 케티스버그 연설,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든 영웅 등을 존경하거나 감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애국적 자부심을 느끼려면 세월을 뛰어넘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소속감에는 책임감도 따라온다. 내 나라의 과거를 현재로 끄집어 내 도덕적 부채를 해결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나라와 역사에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 고 주장한다.



<다>

존 롤스(John Rawls)는 시민 불복종 개념을 “완전히 정의롭지 않으나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 법률이나 정책 또는 명령이 정의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 사회협동 체제의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항거인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 라고 정의한다. 즉, 롤스는 정의에 위배되는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시민 불복종을 인정하는데, 소수자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을 바꾸도록 하는 공적 행위가 곧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이다. 불법적 행동에 대해 합법적 대응 수단을 취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합법적으로 대응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불법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다수의 침묵하고 무관심한 동료 시민들을 일깨우고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 불복종을 정당한 신념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유의 지를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불복종은 자유의 한 부분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외부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자유만 허용된다면, 이는 인간 내면으로부터 오는 자율의 실천으로서 자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에리히 프롬(Erich S. Fromm)은 “인류의 파멸은 증오와 탐욕, 파괴적 행동에 대해 개개인들이 복종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불복종한 의지의 행사를 통해 그나마 파멸을 막고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 고 했다.

<라>

제2차 세계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기차 안에서 한 젊은이가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며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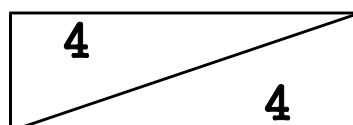
“①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독일에 해가 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꼬박꼬박 세금을 냈고, 법을 지켰으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의 외침에 기차 안은 조용해졌고, 모두들 그 젊은이의 분노와 절망에 동감하는 듯하였다. 그때 한 노인이 말하였다.

“②바로 그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걸세. 젊은이, 히틀러가 그토록 많은 죄를 저지르는 동안 그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지.”

[문제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시민 불복종’ 개념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밑줄 친 ②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밑줄 친 ①의 내용을 비판하시오. (800자, 60점)

[끝]



이 면은 여백입니다.